

가정은 사회를 지탱하는 뿌리이다

박영숙 국회의원



집안의 국민학교 6학년생인 손녀가 할머니인 나를 위해 만든 크리스마스카드에 담은 말은 “할머니는 좀 높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것이었다. 9월중순부터 100일간 열리는 정기국회가 성탄절에 끝나게 되어 있어 목은 해를 정리하고 새해설계를 해야 하는 연말연시를 경황없이 맞이하는 할머니를 보면서 특히 지난 정기국회는 13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데 예산결산 심의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어서 연일 밤늦도록 허덕이는 할머니를 보면서 어린

마음에도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다.

정치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비치기에는 화려하고 회의에나 참여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몸담고 있는 한사람으로서의 나는 국회의원이란 동리병원의 의사처럼 환자가 부를 때에는 밤낮은 물론 어떤 경우에도 달려갈 수 있도록 대기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계획된 삶의 규율을 지킬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사적인 영역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이런 현실은 비단 국회의원에 한정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공직에 있거나 기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 치고 가정에서 식구들과 한끼의 식사라도 매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오늘의 사회가 지나치게 공적인 일이 우선이라는 식으로 굴러가다 보니 사적인 생활은 깡그리 희생시킬 수 밖에 없다. 솔직하게 표현하면 사회에 아버지나 어머니, 아내나 남편, 그리고 자식과 인지를 빼앗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의 가정은 아버지부재 혹은 부모부재의 가정이고 사회는 가정부재의 사회가 되고 있다. 그것에 연유된 청소년에 미치는 영

향을 비롯한 갖가지 사회문제들을 나열할 필요는 느끼지 않는다.

수레를 굴리기 위해서는 두개의 바퀴가 함께 잘 굴러가도록 해야 한다. 공과 사, 남편과 아내, 수입과 지출, 수출과 수입, 정치와 경제, 개발과 자연보전, 노동자와 기업주 등의 두개의 바퀴들이 함께 조화와 형평을 이루면서 굴러갈 때 사람의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설명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오늘의 사회 병폐는 이러한 분명하고도 쉬운 바퀴의 원리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데 있다. 어느것 하나 잘 굴러가는 수레가 없다. 한쪽 바퀴에만 무게가 실린 나머지 다른 한 바퀴는 고장이 생겨 제구실을 못하게 되며 외바퀴의 수레는 잠깐은 굴러가지만 곧 멈출 수 밖에 없게 된다. 더불어 사는 세상은 똑같은 바퀴로서 짐을 나누어 지면서 함께 굴러갈 때 이루어진다.



나는 60세가 된 지금까지 여러 형태의 삶을 살아 오고 있다. 독신으로서의 직장생활을 상당기간 했으며 결혼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해서 가정과 직장에 동시에 봉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알기도 한다. 그리고 어린애가 태어나면서 한때는 전담주부로서 가사만을 돌보기도 했고 또 한때는 가사를 겸해서 무보수로 사회운동에 가담해 본 적도 있다. 지금의 나는 가사는 물론 사적인 생활은 뒷전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공적인 역할만이 강요되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침일이 끝날 무렵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앉아서 한잔의 차를 마시던 비밀스런 나만의 순간도 지금은 나의 것이 아니며 계절마다 별미를 만들어서 인척들, 친구들, 여성운동과 환경운동의 동지들과 함께 나누면서 담소하던 나의



취미이자 즐거움이었던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지가 오래 되었다. 그뿐이 아니다. 주부의 의무로 되어있는 김장도 때를 놓치기가 일쑤이며 어느 한해는 아예 김장을 하지 못한 겨울도 있었다. 그것도 몇포기 김장이 아니라 7~8개의 독을 채워야 하는 김장을 말이다.

어떤 국회의원의 어린 아들이 다음에는 아빠가 선거에서 낙방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귀가하는 아버지와 놀 수 없는 것이 그 아들의 불만이었지만 이토록 혹사 당하는 공직자 또는 기업에 묶여있는 모든 아버지나 어머니들의 고달픔도 문제가 아닌가! 얼마전에 신문에서 읽은 '과로병'이라는 신종병으로 쓰러지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예사롭지가 않다. 우리집은 원래 교수인 남편이 항상 밖의 일을 더 많이 하는 나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더 길다. 그뿐만 아니라 남편은 안씨이고 나는 박씨인 것을 빗대서 남편은 자기는 안사람이고 나는 바깥사람이라고 농담을 해서 사람들을 웃기기도 한다. 그런 남편이 가족과 차분하게 대화도 할 수 없는 지금의 나의 생활을 지켜 보면서 하루는 국회의원 부인중에 이혼하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 이상하다고 한다. 공과 사의 두 바퀴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정과 나의 삶에

예전에 호국을 망명했을 때에 아주 인상깊은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당시 호국에서 몸담아있었는데 호국 장인들이 너무나 친절하게 폐침시간을 지키는 바람에 선수를 포함한 관광객들이요움을 할 수 없었다. 손님들의 특별한 요청에도 꾸밈없이 그들을 원복을 고수했다. 그들이 손님을



우리는 나라들은 국가의 GNP를 들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모든 국가나 회화거리가 마련이다. 그래서 선진국 또는 복지국가로 불리 사회적으로 아무런 성취를 해도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관습이 생기면 의 비평가 될 수 있겠는가! 가정이란 바로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는 근간이다. 회화거리가 가족들이 어떻게 자부심을 가지고 더불어 사는 사회의 다름 한 쪽 한 지극히 국가와 경제 발전에 있어 소홀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 사회에 있어 이익이 국가를 지탱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우리 사회의 기법이나 정책이나 사람들의 의식 속에 근로자들이나 국민은 단지 가정의 건강에 공헌하는 도우미 정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인사전환이 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기업의 경영도, 행정기관의 경영도, 우리 사회 전체가 우선적으로 중시해 온 사회와 동등하게 가정을 중시공체로 복속시키느냐 하는 것이 시급하다.

것이다. 문명이 발달하면서는 하수적으로 변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가족의 대로 해치지 못하는 가운데 직면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 과제일 과 자식을 뒷바라지에 힘쓰는 부모로서는 자식에게서 소외되고 남편 원으로 돌아다니고 아내들은 가사를 전담하는 경우 사회생활에서 소외되고 남편 대로 사회와 직면한 사람만 몰두하고, 아이들은 다관적 체면이 학교에서 학회체적인 인간으로 우선적으로 중시하는 것들은 모종의 사회에서 아버지들이 부에 없다는 것을 아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 공적인 일과 사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고 있는 가정의 회화거리 때 우리 사회도 회화거리 수 의 역할을 할 100% 다 하라고 강요할 때도 마찬가지다.

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와 직면한 것으로서 지칠대로 지친 남편에게 아버지라 하거나 해서 한가지만 할 때처럼 기대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리인가 하는 것이 가 파충부로 일 나가면서 겪는 감동을 떠올리게 된다. 두가지 일을 하는 사람에 는 것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MBC의 '전원일기'에서 일용차인 복권이 어머니 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 열심히 해보기도 했는데 내가 그런 위인이 아니라 생긴다. 나도 언제까지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수퍼우먼을 동경했고 하 를 유지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는 우리 가족의 삶을 매마르게 하고 있어 감동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같다. 특히 가족관계와 대인관계에서 근간함



가정의 생활을 소중하게 여기는 선진국의 모습은 본받을만 하다.

도 중요했지만, 그들은 가족들과의 생활 틀을 깨려고 하지 않았다. 직장인들이 귀가길에 들리는 주점도 어느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문을 닫아서 일정시간의 직장생활 이외의 시간이나 생활형태는 철저하게 가족중심적이고 그들이 중요시하는 사교생활도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부부동반으로, 음식은 간단하게 그리고 주부의 일손을 덜기 위해 설거지는 손님들이 하는 등의 검소하고 실속있는 생활 양식은 본받을 만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이 사업관계로 또는 스트레스 해소목적으로 무한정의 시간과 돈을 유흥업소에 쏟아 붓는 퇴폐적인 모습은 그런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늘의 큰 사회문제의 하나인 인신매매현상 등도 그러한 잘못된 사회의 요구에 수급을 위한 것이 아닌가.

지난번의 나의 연말연시는 손님맞이 등으로 몸은 더 고달팠지만 내 손녀의 소원대로 나는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었다. 변화된 분위기가 작용한 것이다. 오래 전부터 내 친구중 한해에 한번 가족에게도 행선지를 알리지 않고 일주일간의 여행을 떠나는 용감한 주부가 있었다. 그 일주동안에 일년을 버틸 수 있는 활력을 충전시키기 위한 것이란다.

우리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도 이 친구의 용기를 본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며 펜을 놓는다. *